

미래 CEO 꿈 키우는 '청소년 비즈쿨'

지난해 호남 57개교 프로그램 인기...올 전국 500곳으로 중기청·창업지원단 운영학교 모집...최대 6000만원 지원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비즈쿨'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규모를 늘려 전국 50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지원단은 청소년기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를 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호남권에서는 광주 11곳과 전남 46곳, 제주 1곳 등 57개 학교(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24개교)를 선정, 창업 캠프와 기술 체험을 진행했다.

비즈쿨 운영은 학교의 교육 역량에 따라 3단계(도전·도약·선도)로 구분(단계별 운영 요건 및 지원금 차등)되므로, 학교에서는 신청자격 등을 감안해 운영 단계를 선택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도전, 도약, 선도, 연구학교로 나눠 학교별로 500만~6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비즈쿨 학교에 선정되면 실습형 교재와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 운영 사례, 교육 운영방법 등이 담긴 비즈쿨 매뉴얼을 제공하며, 전담 교원 대상 온·오프라인 연수 및 선도 학교 멘토링 등을 통해 비즈쿨 교육(교재활용 교육, 동아리 운영, 기업가정신 특강, 우수 중기 담당 체험활동 등)도 지원한다.

또한 전국 규모의 캠프를 개최해 창업 아이템에 대한 토론·발표, 선배 창업자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함양하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올해 비즈쿨 학교 확대 운영과 더불어 비즈쿨 미운영 학교와 정규 교육 밖에 있는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

? 청소년 비즈쿨 'Business'와 'School'을 결합해 '학교에서 창업을 배운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기업이 정신이나 창업체험을 통해 미래 CEO를 양성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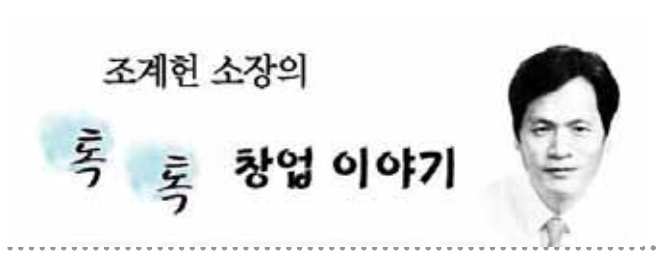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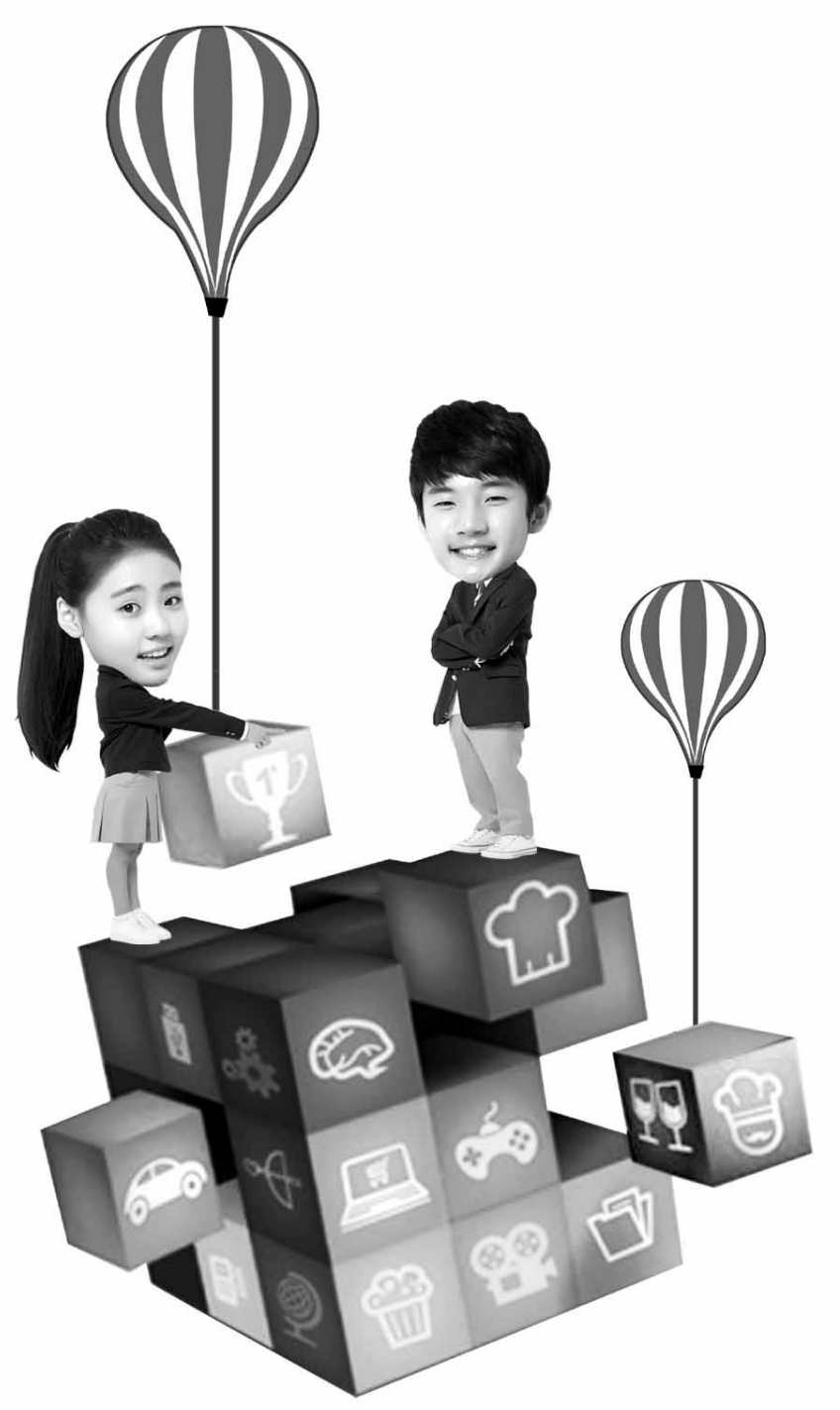
비즈쿨 프로그램의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비즈쿨 연구학교(18개교) 등을 통해 개발된 일반교과-기업가정신 융합교안 및 생활지도안을 온라인(E-Book)으로 보급하고(2017년도 2학기), 기업가정신 체험 거점학교 신설(17개소 내외), 찾아가는 교육(100개교)을 통해 비즈쿨 미운영 학교와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체험이 어려운 학교에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해 비즈쿨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추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비즈쿨 캠프를 개최하는 등 교육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비즈쿨 지정서 수여식 이후 학생들이 우수 중소기업이나 창업지원기관 체험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희망학교는 오는 17일까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042-480-4465) 또는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확인하면 된다.문의 광주·전남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1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운영진단과 경쟁력 강화

자고 일어나면 빈 점포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시장상황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움직임도 둔화시키고 자영업자들의 지속경영에 대한 두려움도 키워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이 진입하는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자영업자들과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기존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경쟁점포들이나 새롭게 가세할 신규 경쟁점포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라는 단어는 이제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경쟁력 강화라는 키워드를 잘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줄기로 형성되어 있다. 첫 번째 줄기는 현재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한 냉철하고 섬세한 운영진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 줄기는 그렇게 수집된 운영진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쟁력 강화전략들을 개발하여 운영중인 점포에 적용하는 것이다. 아마도 창업 컨설팅을 맡겨보신 자영업자들은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해당 점포의 운영상황과 점포 내의 메뉴나 상품 및 다양한 영역과 이미지, 서비스, 고객들에 대한 정밀한 운영진단에 착수하는 상황을 겪어봤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창업컨설턴트의 실력차이는 정확한 진단과 해당 진단을 바탕으로 한 실효적인 경쟁력 강화전략에 대한 도출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로 공장을 들여보자면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는 공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공장의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투입하여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운영진단과 도출결과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전략은 사업장의 지속경영과 매출향상에 상당한 커다란 도움이 된다. 현재 기준으로 자영업 시장을 살펴보면 이런 식의 정기적 진단을 통한 경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전체의 0.01%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사실을 반대로 해석하면 만일 지금이라도 특정 자영업자들이 이런 전략으로 운영방식을 선택한다면 경쟁점포에 비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비록 섬세하게 모아진 운영진단의 결과일지라도 실효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강화방안을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 카피형 강화방안을 만들거나 제시되기 쉬운데 벤치마킹을 통한 어설픈 모방은 검증된 실효적 공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벤치마킹 대상 상권과 입지의 차이와 고객상황과 점포의 차이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베타테스트 기간을 두고 고객반응에 대한 검증 이후에 최종 적용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가들을 통한 운영진단과 경쟁력 강화가 비용부담에서 부담을 느껴 주저한다면 차라리 자체 운영진단 프로그램을 써서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객관화된 지표에 의해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 전문가를 의지하든 스스로 노력하든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를 보이며 결국 불경기로 인한 서바이벌 게임 상황으로 내몰리면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역할은 누구의 몫인지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창업프로젝트 해커톤' 대상 이계선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최...최우수상 이현정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최근 열린 '스마트 창작터 창업프로젝트 해커톤 대회'에서 이계선씨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역 고유의 설화와 전설을 발굴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잃어버린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전자동화책을 제작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씨에게는 전남도지사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에는 미생물을 활용해 후발효차를 제작하고 상품화한 이현정씨의 '떡술'과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이동인씨의 '육아품앗이' 애플리케이션(앱)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목표대 총장상장과 상금 6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 해커톤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연관 직업군의 사람들이 함께 프로젝트 작업하는 것.

이 밖에도 ▲한살이야기(한재경) ▲다기능 온열 빨래건조대(윤성민) ▲지역공유경제 플랫폼 올드잇(조인화) ▲헬스오(정다환) ▲스마트 이사 매니저(김관모) ▲모다콩(송상근) 등 6개팀이 우수상으로 선정돼 각각 진흥원장 상장과 상금 20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콘텐츠 및 앱·웹 등 문화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의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일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창작터 창업프로젝트 해커톤 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진행됐다.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시장 검증과 평가를 통해 총 9점의 아이템이 선발됐다.

오창렬 원장은 "이번 해커톤 대회는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식품과 건강 등 우리 실

생활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아이템이 발굴됐다"면서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을 지속,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 본사건물/지사건물/직업훈련학교/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감정가 58억 ■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 ◆ 평수 15평
- ◆ 평수 12평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용 2천)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보1천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용 5천)
- 성무지구 주거용/사무실 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앞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062-511-7800
010-6832-9700

법률경매 (주) 대진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서구 매월동 (장례식장) 토 2,911평, 건 1,362평 서광주역 1분 / 현정례식장 운영 연매출 약 60억 !! ▶감정가 116억 → 최저가 116억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료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